

한·중·일 IT관련 용어의 사회문화적·언어학적 특징 연구*

- 2005년 1월분 일간신문을 대상으로 -

李美淑·李和娟·姜允玉**

< 要 旨 >

韓·中·日IT關聯用語の社会文化的・言語学的な特徴研究

- 2005年一月の日刊新聞を対象として -

本稿は2005年1月、1ヶ月間韓·中·日、三国の日刊新聞(韓国:朝鮮日報、中国:人民日報、日本:読売新聞)に使われたIT關聯用語に現れた社会文化的・言語学的な特徴を分析し、外来語の受容上の違いを明らかにしようとしたものである。

- 1)個別語数は日本が韓国や中国の3~4倍に至り、ユビキダス環境の造成及び情報の共有化・大衆化が高い。
- 2)韓国と日本は「情報通信・情報社会」「ハイテク」、中国は「コンピュータ」「インターネット」の用語が目立つ。
- 3)延べ語数は中国が韓国と日本の倍を越え、頻度の高い上位10語の全体占有率も45%に上り、相対的に社会的な関心の集中度が高いことが分かる。
- 4)日本は日刊新聞で扱われる専門用語の範囲が細分化され、広範囲に渡っていると言える。一方、中国は基本用語の使用が多く、インフラ(Infra)の構築に励んでいることが分かる。
- 5)二重表記の例は日本が16語で圧倒的に多く、略語までを含むとより多くなる。韓国も日本ほどではないが、用語の翻訳に揺れが見つかり、より慎重な姿勢が要求される。
- 6)語構成上、韓国と日本は合成語の比率が高い。特に、日本は合成の際、単語の部分省略が多い。
- 7)日本は英語の使用率及び混種語の比率が圧倒的に高く、韓国と共に頭字語(Acronym)の使用率が高い。中国は、従来に比べ、英語や混種語が非常に多く、外来語形態素を用いて多様な用語を作る等、新しい現象が起きている。

以上の結果を通して、三国が既存の言語(外来語)の受容体系に混乱を齎していることが分かり、より積極的に専門家機構を通しての用語使用の統制が必要な時期であると言える。ひいて、同じく漢字圏であるだけに専門用語の三国間の検討も必要であろうと思われる。

主題語：韓·中·日、IT關連用語、日刊新聞、社会文化的、言語学的、表記、語構成、語種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언어는 문화를 창조하고 전달하는 도구로, 끊임없이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며 변화해 간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는 언제 어디서나 정보접속이 가능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역, 위상에 따른 정보격차(Digital Divide)도 심해지고 있으며 IT(Information Technology)혁명에 따른 엄청난 양의 정보 유입은 방대한 용어를 동반하여 각국의 외래어 수용 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IT에 대한 국가적·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중·일, 동북아 3국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 예로 「IT」라는 용어만 하더라도 한국의 경우, 본고의 자료조사 시점인 2005년 1월은 「정보통신, 정보기술, 정보통신기술」 등으로 사용되다가 2005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정보기술」로 정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기상으로도 「IT, IT(정보통신),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42-A00066)

** 명지대 일문과 교수, 일본어학(제1저자). 명지대 영문과 교수, 응용언어학. 명지대 중문과 교수, 문자학

IT(정보기술), IT(정보통신기술)」과 더불어 「정보기술(IT), 정보통신기술(IT)」이 병용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IT, IT(情報技術), 情報技術(IT)」로, 중국은 「IT, 信息技術」¹⁾로 병용 표기하고 있다. 나라마다 언어정책이나 사회구조, 문화, 언어구조의 차이에 따라 새로운 용어의 수용양상은 달라지겠지만, 「IT」라는 용어조차 정착되기까지 혼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중·일 3국의 IT관련 용어의 점검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본고는 동일 기간에 한·중·일 3국의 IT관련 용어를 통하여 각 국의 언어학적, 사회문화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편의상 2005년 1월, 1개월간 특정 일간신문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특정 기간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나, 이는 앞으로 추이조사를 통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3국의 사회문화적 현주소 및 외래어 수용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앞으로 3국의 용어 사용에 있어 경제적인 통일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 연구 방법

최근 외래어의 수용을 주도하고 있는 IT관련 용어에 초점을 맞추어 200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 3국의 주요 일간신문의 하나인 조선일보(한국)·인민일보(중국)·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일본)에 나타난 IT관련용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1) 본고의 「IT관련 용어」란 「정보통신·정보사회」 및 「인터넷」, 「컴퓨터(PC포함)」, 「하이테크(디지털가전·전자기술)」와 관련된 용어를 포함한다.²⁾
- 2) 3국의 일간신문에서 1개월간 IT관련 용어의 개별어수(個別語數)와 연어수(延語數)를 조사한다.
- 3) 용어를 각각 1)의 네 범주로 세분화하여 각각 개별어수 및 연어수를 계산하여 범주별 수치를 조사하고, 범주별 용어의 대조를 통하여 사회문화적 특징을 분석한다.³⁾
- 4) 개별어수의 조사 원칙으로는 「IT, IT(정보기술), 정보기술(IT)」과 같은 표기의 병용은 하나의 용어로 간주하되, 「IT, IT화, IT시대」와 같은 합성어는 별개의 용어로 간주한다.
- 5) 수용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동일 용어의 표기상의 병용 및 표기의 변화에 주목한다.
- 6) 용어의 표기, 어종(語種), 어구성(語構成)상의 특징을 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3. IT관련 용어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특징

3. 1 범주별 수치로 본 특징

3. 1. 1 개별어수에 나타난 특징

다음 <표1>은 한·중·일 일간신문의 1개월분에 나타난 IT관련 용어의 개별어수를 범주별로 세분화하여 나타낸 것이다.⁴⁾

<표1> 일간신문 1월분에 나타난 IT관련용어의 개별어수

범주별 나라별	정보통신·정보사회	인터넷	컴퓨터	하이테크	총 계
한국	49(24.5%)	32(16%)	25(12.5%)	94(47%)	200(100%)
일본	177(26.9%)	103(15.6%)	156(23.7%)	223(33.8%)	659(100%)
중국	26(15%)	60(34.7%)	68(39.3%)	19(11%)	173(100%)

개별어수는 일본이 659어로 한국 200어, 중국 173어의 3~4배에 이르고 있다. 각 신문의 성향 및 절대적인 양(면수, 혹은 글자수)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커다란 차이이다. 더불어 한국과 중국의 IT용어의 개별어수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범주별로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모두 「하이테크」 분야가 각각 47%, 33.8%로 1위를, 「정보통신·정보사회」 분야가 각각 24.5%, 26.9%로 2위를 차지한 반면, 중국은 「컴퓨터」 및 「인터넷」 분야가 각각 39.3%, 34.7%로 월등히 우세함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은 빠른 속도로 IT혁명을 거쳐 교육, 출판, 방송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유비쿼터스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하이테크분야에서도 가전혁명(家電革命)이라 불릴 정도로, 하이테크가 가미된 디지털가전의 세 가지 신기(神器)라 불리는 박막형TV, DVD, 디지털 카메라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정보통신·정보사회」 및 「하이테크」와 관련된 용어의 수요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경제개방 이래 과학기술정책에 주력하면서 컴퓨터 관련 분야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최근 이와 관련된 전문용어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으며, 관련 용어를 홍콩 및 대만을 거쳐 받아들이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대량의 용어를 만들어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최근 IT산업을 정부의 8대 산업의 하나로 지정한데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치 등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IT산업의 경쟁력을 갖추어가고 있다. 2002년 12월에 이미 인터넷 사용자수가 5,910만 명을 넘어섰으며 휴대전화 사용자수도 2억 662만 명에 이르고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⁵⁾. 결국, 용어의 범주별 분포 또한 현재 3국의 사회·문화적 관심도를 보여주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2005년 1월 현재 「유비쿼터스」라는 용어 자체가 유입되지 않은 상태이다.

개별어수의 양이 IT강국의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용어가 한 나라의 사회정세를 대변한다」⁶⁾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유비쿼터스 환경 조성 및 대중의 공유·인지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일보 2006년 3월 27일자에 소개된 기사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IT에 관한 평가 및 기대가 실제 상황과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의 「IT839 사업기술역량과 경쟁력분석」에 따르면 81개의 세부기술 중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뒤지지 않는 기술은 휴대인터넷 등 5개에 불과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도하고 있는 이동통신 분야의 차세대 부품 기술도 일본보다 2년 뒤졌으며, 지능형 로봇 등 일부기술은 미국·일본보다 최고 4년이나 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2006년 3월 27일)

이는 한·일 양국의 IT용어의 범주별구성 및 개별어의 고찰을 통해 더욱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3.2에서 개개용어의 분석을 통하여 밝히기로 한다.

3. 1. 2 연어수에 나타난 특징

다음 <표2> 는 연어수를 범주별로 세분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2> 일간신문 1월분에 나타난 IT관련용어의 연어수

범주별 국가별	정보통신·정보사회	인터넷	컴퓨터	하이테크	총 계
한 국	246(15.2%)	474(29.3%)	230(14.2%)	670(41.4%)	1,620(100%)
일 본	333(19.4%)	402(23.4%)	475(27.6%)	508(29.6%)	1,718(100%)
중 국	348(11%)	1,960(62%)	708(22.3%)	152(4.7%)	3,168(100%)

한국은 일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개별어수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연어수에 있어서는 일본과 같은 수준이다. 일본은 각 범주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는 「인터넷」에 집중되어 있다. IT용어의 개별어수가 일본의 4분의 1에 불과했던 중국은 연어수로는 3,168어로 한국 1,620어, 일본 1,718어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이는 중국이 특정 분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의 집중도가 그만큼 높다고도 풀이할 수 있다. 중국이 「인터넷」 분야가 두드러진 반면, 「하이테크」 분야의 용어사용이 부진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하이테크」 분야가 우세함을 알 수 있다. 연어수에 있어서도 나라별 범주별 분포는 개별어수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아래 <표3>의 빈도수 상위 10위인 용어를 살펴보면 중국은 상위 10위에 속하는 용어의 합이 1,426개로 전체 연어수의 45%에 달하고 있어 한국, 일본의 36%, 27%에 비해 몇몇 어휘의 사용비중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상위 10위어 중 한국과 일본은 「IT, 로봇, 디지털, LCD, DVD」 등 「정보통신·정보사회」 및 「하이테크」 관련용어가 5어 이상을 차지하는데 비해 중국은 「信息(정보)」 「手机(휴대전화)」 등 2어를 제외하고는 「컴퓨터」 및 「인터넷」 용어임을 알 수 있다.

<표3> 일간신문 1월분에 나타난 IT관련용어의 빈도수 상위 10위어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한 국	인터넷 (208)	컴퓨터 (84)	사이트 (75)	로봇 (65)	IT (55)	DVD (53)	LCD (53)	PC (32)	홈페이지 (28)	디지털 (27)
일 본	インターネット (87)	パソコン (85)	ホームページ (59)	データ (59)	ATM (38)	DVD (30)	システム (29)	IT (27)	デジタル カメラ (26)	青色 LED (26)
중 국	网络 (네트워크) (279)	网站 (웹사이트) (172)	电子邮箱 (메일우편함) (168)	信息 (정보) (143)	互联网 (인터넷) (134)	手机 (휴대전화) (126)	软件 (소프트웨어) (123)	电脑 (컴퓨터) (118)	网址 (웹주소) (90)	上网 (네트워크연결) (73)

3. 2에서는 개개용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간다.

3. 2 범주별 용어에 나타난 특징

3. 2. 1 정보통신·정보사회 범주

한국은 49어 중, 「IT, IT주, IT제품, IT산업, IT경기」와 같이 IT가 포함된 용어수가 25어에 달하고, 뒤를 이어 「디지털 DB화, 디지털 민주주의, 디지털 시장」 등 디지털이 포함된 용어 및 「DMB폰, DMB단말기, DMB휴대전화기, 위성DMB」 등 DMB가 포함된 용어가 각각 6어로 「IT, 디지털, DMB」라는 3개의 키워드로 요약된다. 다만, 「DMB폰」을 포함하여 휴대전화와 관련된 용어가 4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의 휴대전화 세계시장 점유율이나 보급률을 감안할 때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통신기기 자체의 일본 의존도가 높고, DMB 등 일부에 관심분야가 집중되어 있다는 구조적인 특징이 용어의 사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은 같은 기간 동안 이 분야에서 한국의 3.5배, 중국의 6배에 해당하는 177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 중 「IT, IT時代, IT商品調達, IT版, ITバブル, 通信IT」와 같이 IT가 포함된 용어가 20여 개정도인 점은 한국과 유사하나, 「IC, IC카드, ICT, プリペイドカード, 電子マネー」 등 다양한 용어들이 풍부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일간신문에서는 1개월간 4어에 불과했던 휴대전화 관련 용어가 「カメラ付き携帯電話, 第三世代携帯電話, 第四世代携帯電話, 液晶ガラス, ストレートモデル, 画像付きメール, メール畫像, 青色LED⁷⁾, バックライト, ディ스플레이」 등 54어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모두 기술용어임을 알 수 있다. 휴대전화 보급률 세계 1위인 한국은 완제품으로의 제품명이 일반화된 반면, 일본은 기능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일반화가 두드러진다. 그밖에 재해방지 시스템 관련 용어가 26어에 이르는 것은 IT를 재해관련 시스템에 철저하게 적용하려는 일본이 갖는 특징의 하나라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은 26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 「信息(정보), 城镇信息话(정보화된 주거지), 信息技术(정보기술), 信息管理(정보관리)」와 같이 「정보」가 포함된 용어가 10어에 이르고, 「电子商务(전자상거래), 电子政务(전자정부), 电子新闻(전자신문)」 등 「전자」 관련 어휘가 3어, 그리고 「动感地带(이동통신구역), 无线通信技术(신호분할 병렬접속), 手机上网协议(무선통신조약), 电缆(통신케이블), 光纤(광섬유)」 등, 통신 인프라(Infra)와 관련된 어휘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참고로, 다음은 「정보통신·정보사회」 범주에서 연어수로 각각 상위 5위를 기록하는 용어이다.

〈표4〉 정보통신·정보사회 범주 연어 수 상위 5위 (()안은 빈도수를 나타냄)

	1위	2위	3위	4위	5위
한 국	IT(55)	IT주(20)	텔레메틱스(20)	IT제품(10)	IT산업(10)
일 본	ATM(38)	システム(29)	IT(27)	青色LED(26)	(携帯)メール(21)
중 국	信息(정보) (143)	信息化(정보화) (63)	手机(휴대폰) (126)	城镇信息化(정보화 주거지) (37)	信息技术(정보기술) (27)

3. 2. 1 인터넷 범주

한국의 경우 총 32어 중, 「인터넷, 인터넷강국, 인터넷 게임, 인터넷 투표, 인터넷 세상」 등 「인터넷」이 포함된 용어가 21어에 달하고 그밖에 「홈피, 네트워크, 메일, 이라는」 등의 용어가 있다.

일본은 총 103어에 이르며, 「インターネット商取引, インターネット專業銀行, インターネット衛生, インターネット配信」 「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 インターネット音楽配信サービス, 情報サービス, 全国均一サービス」 등 인터넷 거래, 서비스, 메일과 관련된 용어가 74어로 주종을 이룬다. 이 중에는 「サイト運営者, ポータルサイト, 架空サイト, 携帯電話サイト」 등, 「사이트」 관련 용어도 다량 포함되어 있다(17어).

그 밖에, 「サイバー攻撃, フィッシング詐欺⁸⁾, マルチまがい, マルチマルチまがい販売, ネット詐欺, ネット集団自殺, 自殺サイト」와 같은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작용을 나타내는 어휘가 9어를 기록하고 있어 인터넷의 부정적인 부분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인터넷의 안전성 및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문제 등과 맞물려 「情報モラル, ネットチケット」와 같은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총 60어 중, 「网址(웹 사이트 주소), 网络实名(인터넷 실명), 网上交易(인터넷 거래), 网络游戏(인터넷 게임)」 등 인터넷을 의미하는 「网」이 포함된 용어가 33어에 이른다. 그 외에는 「ID, IP, BLOG, 用户(사용자), 注册(가입), 登录(등록), 下载(다운로드)」 등 네트워크 관련 기본용어이나, 한국의 2배에 이를 정도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어, 빠르게 일반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다음은 「인터넷」 범주에서 연어수로 각각 상위 5위를 기록하는 용어이다. 타 범주에 비해 3국의 사회적 관심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5> 인터넷 범주 연 어수 상위 5위 (()안은 빈도수를 나타냄)

	1위	2위	3위	4위	5위
한 국	인터넷(208)	사이트(75)	홈페이지(28)	인터넷투표(23)	이메일(20)
일 본	インターネット(87)	ホームページ(59)	ネットワーク(18)	ウェブサイト(13)	電子メール(10)
중 국	网络(네트워크) (279)	网站(사이트) (172)	电子邮箱(이메일함)(168)	互联网(인터넷) (134)	网址(웹주소) (90)

3. 2. 3 컴퓨터 범주

한국은 총 25어로 「HDD, 슈퍼컴퓨터, 무선키보드, 픽트브리지(Pict Bridge)」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컴퓨터, PC, PC방, 모니터, 키보드, 다운로드, 윈도」 등 기본용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6배에 해당하는 156어로 「クリックする, マウス, ダウン, ファイル」와 같은 컴퓨터관련 기본 어휘는 물론, 「コンピューター画面, コンピューター音声, コンピューターグラフィック, WMA, CBT」와 같이 기능과 관련된 용어나 「スーパーコンピューター, ホストコンピューター, 基幹コンピューター」 등의 첨단의 컴퓨터 관련 용어, 그리고 「計算ソフト, サーバ向けソフト, 家電向けソフト」와 같은 다양한 소프트 관련 용어가 21어에 이른다. 그 밖에 「健康データ, 不正データ, 文字データ」 등 데이터베이스 관련 어휘가 사용되

고 있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간신문이라는 대중매체에서 다루는 전문용어의 범위가 세분화되고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이 대용량 기계, 슈퍼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선점(先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클라이언트(Client) 부분만 다루고 있을 뿐 국내기술의 축적이 빈약하고 시장이 좁아 정보기술 분야에서도 특정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은 총 68어로, 일본의 절반수준이지만, 한국의 3배에 이른다. 대부분 「전산기, 주변기기, 검색엔진, 클릭」과 같은 컴퓨터관련 기본 어휘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软件(소프트웨어), I-TUNES, 光碟(자기 기억장치), 光盘(광기억 매체), 数字化视频光盘(자료 광기억 디스크), 软件工程(프로그램개발), 手写电脑(필기를 인식하는 컴퓨터), 浏览器(탐색기)」 등 다양한 컴퓨터관련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 분야의 발전 및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참고로 다음은 「컴퓨터」 범주에서 연어수로 각각 상위 5위를 기록하는 용어이다.

〈표6〉 컴퓨터 범주 연 어수 상위 5위 (()안은 빈도수를 나타냄)

	1위	2위	3위	4위	5위
한국	컴퓨터(84)	PC(32)	PC방(18)	노트북PC(14)	HDD(14)
일본	パソコン(85)	データ(59)	コンピュータ(23)	ソフト(15)	ゲーム(12)
중국	软件(소프트웨어) (123)	电脑(컴퓨터) (118)	个人电脑(PC) (25)	盗版压缩碟 (해적판DVD)(20)	光盘(CD) (17)

3. 2. 4 하이테크 범주

한국은 94어로, TV와 관련된 HD 관련 용어를 비롯하여 「LCD, PDP, DVD, SED, CE S」 등 가전 관련 용어가 32어에 이른다. 그밖에 디지털 관련 14어, 로봇 11어로 이어진다.

일본은 한국의 3배에 이르는 223어 중, 「液晶テレビ, 大画面テレビ, 新型LSI」 등 TV관련 용어가 59어에 이르고, 「デジカメ, 新型カメラ, 高級デジカメ, CCD, CS, BS」 등 카메라 관련용어가 42어, 오디오 관련 용어가 16어에 이른다. 한국의 경우, 카메라와 관련된 용어가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SLR카메라, 디지털 사진」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手ブレ補正機能, コンパクト型デジカメ, 高級デジカメ, レンジ交換式一眼レフカメラ, スキマカード型カメラ, グリップ部」 등, 고도의 기능과 관련된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SUV, カーナビ, コンセプト・カー, 未来カー」 등 하이브리드차와 관련된 용어가 23어에 이른다.

이상과 같이 일본은 디지털가전을 비롯하여 하이브리드기술, 카메라 등의 분야에서도 한국보다 100어 이상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이테크분야의 역사가 긴 만큼 일본이 기술용어의 대중화가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용어의 빈번한 사용 또한, 이 분야의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일본의 현 위치를 보여주는 일면이 아닐까 생각된다. 즉, 이처럼 양적으로 일본이 우세한 이유로는 기술용어의 공유 폭이 넓고, 디지털, 가전 등 역사가 길며 전 분야에 걸쳐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중국은 19어로 「MP3, DVD, LCD, IPOD, 数码摄像机(디지털카메라), 多媒体技术(멀티미디어기술), 液晶显示器(LCD 모니터), 液晶电视(LCD TV)」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사

용빈도가 적어, 이 분야에 있어서는 초기 단계라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다음은 「하이테크」 범주에서 연어수로 상위 5위를 기록하는 용어이다.

〈표7〉 하이테크 범주 연어 수 상위 5위 (()안은 빈도수를 나타냄)

	1위	2위	3위	4위	5위
한국	로봇(65)	LCD(58)	DVD(53)	PDP(37)	디지털(27)
일본	DVD(30)	デジタルカメラ(26)	デジタル家電(24)	ロボット(22)	ハイブリッド車(20)
중국	数码相机 (디지털카메라)(14)	多媒体技术 (멀티미디어기술)(12)	液晶显示器 (LCD모니터)(5)	液晶电视 (LCDTV)(5)	MP3 (5)

4. IT관련 용어의 언어학적 특징

4.1 표기의 특징

먼저, 「IT(정보기술), 정보기술(IT)」, 또는 「HD(고화질), 하이브리드(Hi-bred)」와 같이 하나의 용어가 둘 이상의 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분석하기로 한다. 이들은 수용과정에서 나타나는 표기상의 과도기적 현상의 일종으로 용어의 불완전한 정착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즉, 대량의 용어 유입은 표기의 병용현상을 가져온다.

2005년 1월의 동일 일간신문 상에 나타난 이중 표기의 예는 한국 2종, 일본 16종으로 일본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총 용어의 수가 한국의 3배에 이르는 것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カーナビ(カーナビゲーション), ネット(インターネット), メール(携帯電話メール, 혹은 電子メール)과 같은 생략형과의 이중 표기를 포함한다면 표기의 난립이 심각한 수준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는 「IT」를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아 상대적인 대비를 이룬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1) 한국

- IT : IT, IT(정보통신), IT(정보기술), IT(정보통신기술), 정보기술(IT), 정보통신기술(IT)
- 가전쇼 : CES, CE쇼, CES쇼

2) 일본

- IT : IT, IT(情報技術), 情報技術(IT)
- ATM : ATM, ATM(現金自動預け払い機), 現金自動預け払い機(ATM)
- 청색다이오드 : 青色ダイオード(LED), 青色発光ダイオード, 青色LED
- 전국균일서비스 : ユニバーサルサービス, 全国均一サービス
- 프로바이더 : インターネット接続事業者, ネット接続事業者, プロバイダー

3) 중국

- IT : IT, 信息技术

한편, 용어의 도입 단계에서 「HD(고화질)」과 같이 ()안에 설명을 부가한 용어는 한국은 34어 정도이고 일본은 49어, 중국은 13어정도이다. 앞에 제시한 「IT」 외에도 다음의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의 예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3국의 표기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1)한국 : CE쇼(Consumer Electronics Show), CES, CES쇼
- 2)일본 : 家電ショー(CES)
- 3)중국 : CES(美国拉种维加种电子展)

4. 2 어구성적 특징

다음은 어구성적(語構成的) 측면에서 분류한 것이다. 신어가 어떠한 어구성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먼저 하나의 어기(語基)로 이루어진 단일어(單一語)와 2개 이상의 어기로 이루어진 복합어(複合語), 어기와 접사(接辭)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派生語)로 나눌 수 있다⁹⁾. 신어의 어구성별 특성을 논하는데 있어, 중국어는 한국어나 일본어와는 큰 차이를 보이므로 편의상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먼저 IT관련용어를 단일어와 합성어로 나누되, 합성어는 「정보기술(정보+기술)」과 같은 복합어와 「-化, -型, -式, 新-, 全-」과 같은 접사가 붙은 파생어¹⁰⁾로 하위분류한다. 사이트(Web+Site), 메일(電子메일)과 같이 단순 절단형도 단일어로 분류한다. 그밖에 분류기준은 森田(1991)에 근거한다. 복합어는 다시 형성(Word formation)과정에 따라 「정보기술(정보+기술)」과 같이 생략이 되지 않은 경우(「일반 복합」이라 명명함)와, 다음과 같은 「절단(Clipped) 복합」 「혼성(Blending) 복합」으로 분류한다. 일본의 경우가 절단 및 혼성복합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었다.

1) 「절단 복합」의 경우

- 텔레스펙터클 : Telematics + Spectacles
- 카-나비 : 카 + 나비게이션
- 넷트쇼핑 : 인터넷 + 쇼핑

2) 「혼성 복합」의 경우

- 텔레메틱스 : Telecommunication + Informatics
- 넷트銀 : 인터넷 + 銀行
- 네켓트 : 인터넷 + チケット

아래 <표8>을 참고 바란다. (단, 병용된 표기를 포함하였으므로 한국어는 200어에서 202어로, 일본어는 659어에서 675어로 숫자가 늘었음을 밝힌다)

<표8> 용어 형성에 의한 분류

용어형성과정 국가별	단일어	합성어				총 계
		일반복합	절단복합	혼성복합	파생어	
한국	15(7.4%)	172(85.1%)	6(3%)	4(2%)	5(2.5%)	202(100%)
일본	81(12%)	511(75.7%)	33(4.9%)	10(1.5%)	40(5.9%)	675(100%)

일본의 경우 단일어의 예가 한국의 5배를 넘고 있다. 복합어의 비율은 한국 85%, 일본 82.1%이나 일본은 「四次元デジタル宇宙プロジェクト(4단어), 救急治療情報伝達システム(5단어), 最新LAN対応一眼レフカメラ(6단어)」 등 4단어 이상의 어구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일본어가 어구성상 형태론적 결속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의 IT관련용어 중에는 「과생어」도 많은 편이다. 한국이 「HD급(HD+급)」 「ATM기(ATM+기)」 등 5어에 지나지 않는데 비해, 일본어는 「-化, -型, 低-, 省-」 등의 접사가 붙은 예가 많아, 「IT化, SUV化, コンパクト型, 低価格パソコン, 省スペース」 등 40어에 이른다. 복합어중 「[人間+型]+ロボット」 「[お手伝い]+ロボット」와 같이 1차 어구성에서 접사를 사용하고 있는 용어도 50어에 이른다. 다음은 일본의 IT용어 중 과생어의 일부이다.

4. 3 어종별 특징

다음은 용어를 어종(語種)에 의해 분류한 것이다. 어종이란 단어를 분류하는 관점의 하나로 일본어나 한국어의 경우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의 구별을 말한다. 단, 중국어의 경우에는 고유어=한자어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편의상, 고유어, 한자어, 또는 외래어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단종어(單種語), 2종이상의 결합을 혼종어(混種語)라 부르기로 한다. 2종 이상의 요소의 결합으로 어구성의 관점에서 보면 2차적인 합성어로 그 언어의 조어력(造語力)을 말해주는 잣대가 될 수 있다. 단, 병용된 표기를 포함시킴으로써 한국은 200어에서 202어로, 일본은 659어에서 675어로 중국은 173어에서 174어로 늘었음을 밝힌다.

〈표9〉 일간신문에 나타난 IT관련용어의 어종별 분포

어종별		국가별		한 국		일 본		중 국	
단 종 어	영 어	영어발음	52(25.7%)	138 (68.3%)	208(30.8%)	308 (45.6%)	-	171 (98.3%)	
		두문자어	21(10.4%)		37(5.5%)		23(13.2%)		
		영어발음+두문자어	38(18.8%)		22(3.3%)		-		
	한자어	27(13.4%)	41(6.1%)	148(85.1%)					
혼 종 어	영어+한자어	44(21.8%)	64(31.7%)	30(4.4%)	367 (54.4%)	-	3 (1.7%)		
	두문자어+한자어	13(6.4%)		288(42.7%)		3(1.7%)			
	영어+한자어+두문자어	4(2%)		4(0.6%)		-			
	라틴어 등, 기타 언어 포함	3(1.5%)		4(0.6%)		-			
	영어+고유어	-		16(2.4%)		-			
	영어+한자어+고유어	-		12(1.8%)		-			
	두문자어+한자어+고유어	-		7(1%)		-			
	한자어+고유어	-		6(0.9%)		-			
합 계		202(100%)		675(100%)		174(100%)			

먼저 단종어의 비율은 중국 98.3%(171어), 한국 68.3%(138어), 일본 45.6%(308어)순으로 중국이 가장 높으며, 혼종어의 비율은 일본 54.4%(367어), 한국 31.7%(138어), 중국 1.7%(3어)순으로 일본이 가장 높다.

한국의 경우, 사전 표제어의 어종을 분류한 나카무라(中村暎枝, 1968)에 의하면 전체 어휘 중 고유어 44.5%, 한자어 45.4%, 외래어 3%, 그리고 혼종어는 7.1%라는 보고가 있다. 또한 신문어휘의 어종별 구성¹¹⁾을 조사한 강신항(1991)에 의하면 각각 19.8%, 74.4%, 5.7%, 0.5%였다. 즉 두 가지 조사에서 혼종어는 각각 7.1%, 0.5%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IT관련 용어가 나타내는 31.7%는 매우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장원재(2003)에서 제시한 『新選國語辭典』(2002)의 표제어의 어종조사 결과를 보면 고유어 33.8%, 한자어 49.1%, 외래어 8.8%로 혼종어는 8.4%에 불과했다. 강신항(1991)에서 제시한 일본국립국어연구소의 신문어휘조사에 의하면 각각 38.8%, 44.3%, 12.6%, 12.6%였다. 즉 두 가지 조사에서 혼종어는 각각 8.4%, 4.3%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IT관련 용어가 나타내는 54.4%는 매우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이처럼 IT관련 용어에 있어 한국과 일본 모두 혼종어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아 기존의 수용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1.7%로 극히 낮으나 기존의 체계에서 혼종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변화라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용어를 만들어내고 있다.

· e時代(정보화 시대), Excel文檔(엑셀 문서)

둘째, 3국 모두 영어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다. 영어 및 영어가 포함된 용어의 비율이 한국 85.1%, 일본 91.5%, 중국 15%로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영어의 영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최근 대외개방이라는 국가경영이념의 변화에 따라 언어에 대한 중국인들의 이데올로기적인 관념이 크게 약화되었고, 여기에 세계적인 정보화시대의 물결이 중국에 파급되면서 대량 정보의 소화가 어렵게 되자 불가피하게 대량의 외래어가 등장하게 되었다.¹²⁾ 이에 따라, 기존의 음역(音譯)이나 의역(意譯)을 통한 외래어 표기방법을 벗어나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예가 차츰 늘어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고유어로서 상당한 기반을 갖고 있는 어휘에서 조차 영어표기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電子信箱→E-mail, 紅客→黑客→Hacker, 貓→Modem, 博客→BLOG

셋째, 두문자어(Acronym)의 증가를 들 수 있다.

「LCD, DMB, PDP, HD, HDD」 등의 영어 두문자(또는 두문자어 포함)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37.6%(76어), 일본 53%(358어), 중국 14.9%(26어)로 일본, 한국, 중국 순이다. 정확하게 정의되어 정형화된 두문자는 정확한 기술과 의지전달을 가능하게 해 주는 장점이 있어 세계 공통어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초기 단계에서 정보의 공유를 어렵게 하는 결과가 우려된다. 중국의 경우는 획기적인 수치로 「ID, PC, WAP¹³⁾, TCP¹⁴⁾, IPOD, I-TUNES, ADSL¹⁵⁾」과 같이 영어 그대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중국의 외래어 수용체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해석된다.

한자어(또는 한자어 포함)의 비율은 한국 43.5%(88어)로, 일본 57.5%(388어), 중국 85.1%(148어)로 중국, 일본, 한국 순이다. 중국어는 역사·문화적, 심리적인 원인 등으로 외래어 수용에 있어 지극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과정을 거쳐 오는 과정에서 중국만이 갖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우선, 어휘를 자국내 소수민족의 언어인 만주어, 위구르어, 티베트어 등에서 우선적으로 받아들여 사용해 왔고, 영어와 같은 서구어를 받아들이는 경우

에도 「可口可樂(코카콜라), 百事可樂(펩시콜라)」와 같이 어음적(語音的)인 측면과 더불어 문자의 의미적(意味的)인 측면을 살리는 방향으로 수용하여 왔다. 많은 경우, 어음적으로는 차이가 있더라도 문자의 의미로 원어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수용하고 있다.

한자어 의역(意譯)에 있어서도 외래어 형태소를 이용한 조어법이 크게 발달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을 나타내는 외래어 표기인 「网」이 포함된 어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 网站(웹 사이트), 主干网(장거리 통신), 上网(네트워크상의 연결), 网民(네티즌)

마지막으로 삼국 모두 IT관련 용어에 고유어가 사용된 예가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은 전무하며, 일본은 5.6%(38어)정도인데, 대부분이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혼종어를 형성한 경우이다. 이는 일본어의 어구성상의 유연성과도 관련이 있다.

- 電池交換お知らせアラム(한자어+고유어+영어)
- 携帯端末向けソフト(한자어+고유어+영어)
- MS陣營作り(두문자+한자어+고유어)
- スイカ(고유어+영어)

5. 맺음말

최근 1개월간의 한·중·일 3국의 일간신문에서 사용된 IT관련용어에 나타난 사회문화적·언어학적 특징을 통하여 3국의 사회문화적 현주소를 이해하고, 외래어 수용체계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용어의 분포 및 빈도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일본이 일간신문에서 다루는 전문용어의 범위가 세분화되고 광범위하며, 기술용어의 대중화가 앞서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표기의 난립은 3국 중, 가장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양적으로는 일본과 같으나, 특정부분에 관심이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표기상의 난립도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중국은 기본용어의 사용이 매우 활발하며, 인프라(Infra)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종래에 비해 표기상의 다양성이 눈에 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IT관련용어가 표기상으로 국가간의 차이는 있지만, 3국 모두 기존의 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가 기구를 통한 용어의 규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용어사용의 일관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같은 한자권인 만큼 전문용어의 3국간의 검토를 모색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발판으로 하여 앞으로 3국의 공통 용어를 추출하여 대중의 정보 공유도·인지도를 조사하여 국가별, 성별, 세대별, 위상별 정보격차를 연구하고자 한다.

【注】

- 1) 중국어에는 「IT(信息技术)」와 같이 「영어(중국어 설명)」로 표기하는 예는 없고, 「博客(BLOG), 卫星定位系统(GPRS)」와 같이 한자어(영어 설명)표기를 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괄호 안에 중국어로 설명을 부가한 예를 볼 수 있다.

- 2) 일본의 대표적인 용어집인 『現代用語の基礎知識』(2006)¹⁾의 「IT・情報社会」라는 항목을 참고로 하여 한국, 중국에도 함께 적용하였다.
- 3) 범주별 분류는 『現代用語の基礎知識』(2005)의 분류에 의거하였다. 그밖에 디지털방송 항목이 있으나 극히 용례가 적었고, 중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정보통신·정보사회 항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편의상 정보통신·정보사회 항목에 포함시켰다.
- 4) 각 범주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였다.
 - ① 정보통신·정보사회 : IT전반, 시스템 전반, 데이터, 휴대전화, 디지털방송 등
 - ② 컴퓨터 : 컴퓨터 전반, 소프트웨어, PC, 컴퓨터게임 등
 - ③ 인터넷 : 인터넷 전반, 웹 사이트, 네트워크, HP, 전자메일 등
 - ④ 하이테크 : 디지털 가전(LCD, PDP, DVD 등), 전자기술(로봇, SUV 등)
- 5) 玉洲传播出版社(2003)
- 6) 自由国民社『現代用語の基礎知識』(1997) 참조.
- 7) 푸른빛을 내는 발광 다이오드로, 디스플레이 등에 유용하여 휴대전화 등 각종 전자제품의 표시, 교통신호기 등에 실용화되고 있다. 이를 개발한 나카무라(中村修二)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분쟁으로 최근 화제가 된 바 있다.
- 8) 신용카드회사나 쇼핑사이트의 이름을 빌려 메일을 송신, 수신자를 유혹하는 문구로 수신자를 거짓 웹사이트로 연결시켜 신용카드번호나 이름 패스워드·암호 등의 중요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정보를 훔치는 행위.
- 9) 일반적으로 복합어와 파생어를 합쳐 합성어로 부른다. (日本語教育学会編(2005)참조 p239)
- 10) 복합어와 파생어의 판정은 최종단계에서 한다. 예를 들어, 「人間型ロボット」는 「[人間+型]+ロボット」로 보아 복합어로 간주하며 「ハードディスク記録型」는 「[ハードディスク+記録]+型」로 보아 파생어로 간주한다. (森田1991참조)
- 11) 1983년 7월 28일의 중앙일보의 어휘
- 12) 참고로 2005년 1월분 인민일보에 사용된 외래어는 하루 평균 90회였고, 종류는 170어에 이르렀다.
- 13)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의 두문자, 2000년 4월에 국제 규격화된 휴대전화 단말기 전용의 인터넷용 프로토콜.
- 14)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의 두문자, 1975년 미국 국방성에서 개발한 인터넷 표준프로토콜.
- 15) 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의 두문자, 기존의 전화 가입자선을 사용하여 고속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

【IT관련용어 채집자료】

- 朝鮮日報(한국) 2005년1월1일~1월 31일
 読売新聞(일본) 2005년1월1일~1월 31일
 人民日報(중국) 2005년1월1일~1월 31일

【参考文献】

- 강신항(1991) 『현대 국어 어휘 사용의 양상』 태학사
 강운옥(2005) 『중국의 일간신문에 나타난 IT관련 용어집』 명지대학교
 김광혜(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김동균(2005) 『중국의 IT·컴퓨터용어사전』 넥서스
 김영선(1999) 「한국어의 외래어 차용」 『한국어 의미학』 5
 이화연(2005) 『한국의 일간신문에 나타난 IT관련 용어집』 J&C
 이미숙(2006) 『일본의 일간신문에 나타난 IT관련 용어집』 J&C
 장원재(2003) 『키워드로 읽는 일본어학2』 글로세움, pp.93-97
 荒川清秀(2005) 「複合漢語の日中比較」 『日本語学特集テーマ別ファイル 語彙(Ⅰ)』

明治書院, pp.328-339

鈴木孝夫(1990)『日本語の語彙と表現』大修館書店

自由国民社出版部(2005)『現代用語の基礎知識』自由国民社

日本語教育学会編(2005)『新版 日本語教育辞典』大修館書店, pp.256-262

森田良行의(1989)『ケーススタディ日本語の語彙』桜楓社, pp.45-62

玉洲伝播出版社(2003)『新華社新聞信息中心』『図説中国』玉洲伝播出版社

< 요 지 >

한·중·일 IT관련용어의 언어학적·사회문화적 특징연구

- 2005년 1월분 일간신문을 대상으로 -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대량의 IT관련 정보는 방대한 용어를 동반하여 각국의 언어(외래어) 수용 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본고는 2005년 1월, 1개월간 한중일 3국의 일간신문(한국:조선일보, 중국:인민일보, 일본:요미우리신문)에서 사용된 IT관련용어에 나타난 언어학적, 사회문화적 특징을 분석하여 3국의 사회문화적 현주소를 이해하고, 외래어 수용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시도되었다.

- 1) 개별어수로는 일본이 한국과 중국의 3~4배에 달해, 상대적으로 정보의 공유화·대중화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2) 한국과 일본은 「정보통신·정보사회」 및 「하이테크」 범주의 용어가, 중국은 「컴퓨터」 「인터넷」 범주의 용어가 두드러져 현시점에서 3국의 사회문화적 관심의 차이를 예측할 수 있다.
- 3) 언어수로는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2배가 넘고, 빈도별 상위 10위어의 전체비율이 45%로 높아,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상대적으로 일본이 일간신문에서 다루는 전문용어의 범위가 세분화되고 광범위하며, 기술용어의 대중화가 앞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기본용어의 사용이 매우 활발하며, 인프라(Infra)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 5) 표기상 이중으로 표기되는 예는 일본이 16어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절단형이 사용된 예를 포함하면 더욱 높아진다. 한국도 용어의 번역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시기이다.
- 6) 어구성적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모두 합성어의 비율이 매우 높고, 특히 한국에 비해 일본은 어형의 일부가 절단된 형태가 상대적으로 많다.
- 7) 어종별로는 일본이 영어(또는 영어 포함)의 사용율 및 혼종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한국과 일본 모두 두문자어(Acronym) 사용율도 압도적으로 높아, 사회구성원 간의 정보 공유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상대적으로 중국의 경우는 영어(두문자)의 사용 비율이 낮지만, 종래의 체계에 비하면 영어 및 혼종어의 비율이 매우 높고, 「网」과 같은 외래어 형태소를 사용한 용어가 급속히 늘어나는 등 새로운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다.

즉, 표기상으로 3국 모두 기존의 체계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적극적인 전문가 기구 등을 통하여 용어사용의 통제가 필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동일 한자권인 만큼, 전문 용어의 3국간의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

■ 이미숙(李美淑)

명지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120-728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명지대학교 일어일문학과
02-300-0563
lms@mju.ac.kr

■ 이화연(李和娟)

명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120-728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명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02-300-0535
hwlee@mju.ac.kr

■ 강윤옥(姜允玉)

명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20-728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명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02-300-0553

yokang@mju.ac.kr

- 투 고 일: 2006년 6월 15일
- 심사개시: 2006년 6월 25일
- 심사완료: 2006년 8월 4일

K C I